

낸드플래시 시장 장기전망 긍정적

골드만삭스, 가격하락이 수요 촉발 ... 출하량 130-170% 급증 전망

골드만삭스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장기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기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SanDisk(SNDK)는 가격하락이 수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낸드플래시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SanDisk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영향이 본격화되려면 최소 60-9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 총 이익률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멀티미디어 기기와 휴대전화 신제품 등의 영향으로 향후 3년 동안 낸드플래시 출하량은 130-170%의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03>